

현역 물갈이·국힘 호남 공략·제3지대 돌풍 ‘촉각’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관전포인트
정치 신인들 민주 공천권 따낼까
국힘 천하람·이정현의 순천 출마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
“민주당 떨어뜨릴 비토 파워 주목”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광주·전남 총선 분위기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인지도를 앞세운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 ‘제3지대 돌풍’ 등 지역 정치권을 뒤흔들 변수들도 많다.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에서 공천권을 따낸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지역에선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힘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초선급인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신인 등 총선 입지자들의 도전이 거세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현역의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중앙당의 공천 심사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늘리고, 현역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게되면 감산비율을 30%로 높이는 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당내 진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조치로 지역 내에서도 진명계 중심의 정치체제로 개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도 내년 총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순천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과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출마가 관심거리다.

기존 선거구(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순천갑·을) 등에 따라 두 출마예정자의 지역구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두 후보자 모두 지역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올리고 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내

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출신의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남 동부권에 교두보를 놓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내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제3지대 돌풍’이다. 우선 민주당발 ‘이낙연 신당’이 돌풍의 중심이 될 지 주목된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접촉하면서 제3지대 결집 동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과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라는 답이 아닌, 제3의 답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창당 가능성을 확실히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도 주목된다. 지역의 2030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광주를 찾아 “신당이 추진된다면 광주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다”며 존재감있는 호남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지세를 결집하기도 했다.

제3지대 이합집산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정치 판도는 시계제로 형국이다.

서구를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 또한 지난 8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 준비위원장과 정의당 계열 중도 확장 그룹인 ‘세번째그룹’의 신당과 연대할 지도 관심이 많다. 금 위원장 등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제3지대의 빅텐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가 잦은 속의 태풍으로 머물지, 돌풍의 중심이 될 지 주목된다.

오승용 김민정책리서치 대표는 “민주당 여론을 분열시키는 신당 창당 초반기에는 호남의 여론은 부정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에서 제3지대 돌풍이 불면 광주·전남에도 늦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12월과 1월은 신당의 시간으로 신당 창당은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5% 이내 경합 선거구가 많았다. 양당 간 표차는 2000표에서 3000표 정도 되는데 제3지대의 파괴력은 당선 파워보다 ‘비토 파워’, 즉 민주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파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D-22, 3월19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된 유권자는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한다.

3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고 한다.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이기간 중에 할 수 있다.

D-20, 3월21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후보자등록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13, 3월28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4월9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사무원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기간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서 어느 정당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12, 3월29일. 선거인명부확정일이다. 선거인명부확

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D-10, 3월31일.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의 발송,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이 이날까지 실시된다. 우편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읽어 보면,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판단하고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5, 4월5일.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기간이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D-day, 4월10일은 선거일이다. 이날은 지정된 투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는 희망찬 미래의 시작이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당·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도 잘 살펴보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겠다. 선거의 주인공은 우리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용서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순사건 유적 도록

‘역사 유적지로 보는 여수·순천 10·19사건 그날의 현장’ 발간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그날의 현장 93곳 수 차례 답사, 학계·연구자 고증 거쳐 420여 장 고화질 사진으로 묶어 펴내

